

## ‘짱깨’와 ‘뽕즈’의 간극: ‘BTS 논란’을 통해 나타난 한·중 문화교류의 ‘사상누각’\*

김정은\*\*

### — 목 차 —

1. 머리말: ‘짱깨’와 ‘뽕즈’
2. 한·중 사이 편견과 원인
3. 한·중 문화 갈등과 담론
4. 맺음말: ‘사상누각’

### 국문초록

BTS를 둘러싼 논란은 1992년 한·중 양국이 수교를 맺은 이래 약 30여 년 동안 쌓여온 여러 문제가 단적으로 표출된 사건이다. 본고는 중국 웨이보 댓글과 한국 기사 댓글을 중심으로 BTS 논란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과 그 속에 내재된 담론들을 분석하여, 한·중 교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교류에 대해 전망한다.

한·중 양국은 국민들이 서로에 대해 비하하는 단어들 존재할 정도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차이이다. 둘째, 역사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이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중 양국의 문화적 갈등의 이면에 내재된 담론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문화 자본주의의 역학이 내재되어 있다. 둘째, 문화 패권주의/제국주의의 논

\* 이 논문은 ‘2020 한중교육문화포럼’(2020년 12월 19일)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하였다.

\*\* 한국외대 중국어교육과 강사, 한국외대 대만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리가 내재되어 있다. 셋째, 애국주의와 문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내재되어 있다.

한·중 양국이 서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된 정치, 역사, 경제 등의 원인에 대한 간극을 메우지 못하고 문화적 교류를 둘러싼 갈등에 내재되어 있는 담론들을 완화시키지 못한다면 양국의 문화교류가 ‘사상누각’이 되어 허물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키워드:** 한·중 문화교류, BTS 논란, 짱깨, 빵즈, 한·중 편견, 한·중 문화 갈등, 사상누각

## 1. 머리말: ‘짱깨’와 ‘빵즈’

2020년 10월 7일 ‘벤 플리트 상(James Alward Van Fleet Award)’<sup>1)</sup> 시상식, 한국의 대표적 아이돌인 방탄소년단(이하 BTS)의 리더 ‘랩 몬스터(Rap Monster, 본명: 김남준, 이하 RM)’의 수상 소감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은 한·중 양국 교류의 현주소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그 이름도 낯선 이 시상식에서 BTS의 리더 RM은 “올해 행사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의미가 남다르다. 우리는 양국(our two nations)이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와 수많은 남녀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sup>2)</sup>이라고 발언했다. 한·미 친선을 강조하고 이에 기여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시상식의 발언으로 큰 무리가 없었다. 그런데 중국의 일부 네티즌이 ‘양국(our two nations)’이 한국과 미국을 의미하며 이는 중국을 무시한 발언이라고 비난하고, 이러한 일부 중국 네티즌의 반응을 중국의 관영매체인 『환구시보(環球時報)』가 10월 12일 보도하면서 논란이 커지기 시작했다. 이 환구시보의 보도가 한국에 알려지고 일부 한국 네티즌이 이에

1) “한·미 친선협회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1992년부터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매년 수여하고 있는 상으로, 1950년 미 2군단장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제임스 벤 플리트의 이름을 딴 것이다.”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8554&cid=43667>, 검색일: 2020년 12월 9일.

2) 백희연, 「BTS ‘6·25 발언’에 발끈한 中네티즌 “우릴 무시, 아미 탈퇴”」, 『중앙일보』, 2020년 10월 12일.

분노하면서 한국에서도 논란이 확산됐다.

BTS 논란을 전후하여 한국의 대표적 여가수 이효리의 ‘마오 논란’, 한국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BLACKPINK)의 ‘판다 논란’, 중국 게임회사 페이퍼게임즈(paper games)의 샤이닝니키(Shining Nikki) 게임의 ‘한복 논란’, 중국 『환구시보』의 ‘파오차이 논란’ 등 양국의 문화와 관련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속출했고, 그 과정에서 양국 네티즌들은 서로에게 가진 편견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한·중 사이에 존재하는 서로에 대한 편견은 양국에서 서로를 비하해서 부르는 ‘짱깨’와 ‘뽕즈(棒子)’<sup>3)</sup>라는 단어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짱깨’라는 단어는 한국에서 중국인을 비하하여 칭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말이고, ‘뽕즈’라는 단어는 중국에서 한국인을 비하하여 칭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이다.

짱깨(짱개)는 중국어로 가게 주인이라는 말인 ‘장궈(掌櫃, 발음: 장꾸이(zhǎngguì))’가 짜장면과 발음이 비슷한 것에서 유래된 말로, 주로 중국 음식점 관련 종사자나 음식을 지칭하던 은어가 중국인 일반을 지칭하는 비칭으로 쓰이게 되었다.<sup>4)</sup>

“장궈는 한국말로 ‘사장’이란 뜻이에요. 한국인들이 중국 사람을 ‘짱개’라고 하는 건 ‘짜장면’과 발음이 비슷해서 비꼬아 부르는 말이지요.”<sup>5)</sup>라는 한 한국 화교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짱개’라는 단어는 한국인들의 한국 화교와 중국인에 대한 인식과 편견을 잘 보여주는 말인 동시에 한국 화교의 역사와 그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말이다. 이처럼 중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을 보여주는 단어로 ‘짱꼴라’<sup>6)</sup>와 ‘되놈(떼놈, 떼놈)’<sup>7)</sup>이라는 말도 있다. ‘짱꼴라’라

3) ‘棒子’를 외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면 ‘방즈’가 되지만, 실제 발음이 ‘뽕즈’에 가까우며, 또한 이 단어가 한국인을 비하하며 사용될 때 그 어감이 부드럽지 않아 ‘방즈’라 발음되기는 힘들고, 이 단어의 유래에 대한 중국 바이두(百度) 백과의 설명에서도 ‘뽕즈’라 표기하고 있어, 본고에서는 이 단어를 ‘뽕즈’라 표기하기로 한다.

4)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C%A7%B1%EA%B9%A8>, 검색일: 2020년 12월 9일.

5) 차준철, 「“100년 함께 산 우릴 외국인이라뇨” 인천 선린동 차이나타운」, 『경향신문』, 1999년 6월 5일.

는 단어는 일제강점기에 한국에 유입된 일본어 ‘장꼬로’의 일부 발음이 변형된 말로, 역시 중국인을 비하하여 부르는 말이다. ‘되놈(때놈, 때놈)’이라는 단어는 한국에서 ‘짱깨’와 마찬가지로 중국인을 폄하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말인데, “중국인은 더럽다”는 편견에서 비롯된 ‘때놈(똥놈)’, 중국의 인구가 많다는 것에서 비롯된 ‘때놈(똥놈)’으로 변형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가오리 빵즈는 한반도의 조선 민족에 대한 중국인들의 폄하식 표현이다. 이 단어는 청대에 이미 나왔지만, 청말민국(清末民國) 시기 특히 중국의 항일전쟁 시기(1931년~1945년)에 널리 사용됐다. 일본이 많은 조선인을 중국에 파견하여 전쟁에 복무하게 하였기 때문에, 중국 민중의 한이 뼈에 사무치게 되었고, ‘가오리 빵즈’라는 이 멸칭(蔑稱)이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sup>8)</sup>

위의 ‘빵즈’라는 단어의 설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단어는 중국에서 한국인을 비하하여 부르는 말이다. ‘빵즈’라는 단어는 중국의 항일전쟁 역사와

6) “짱꼴라는 한족인 환관이나 권세가들이 만주족인 청나라의 황제 앞에서 자신을 ‘노재(奴才)’라 부르던 것을 비꼬는 ‘청국노(淸國奴)’에서 유래되었다. 이 말은 일본이 타이완을 식민지배하면서 일본에 유입되었는데, 일본에서는 중국어 발음 ‘칭궈누’가 ‘장꼬로(ちゃんころ)’로 발음되었다. 이 말이 일제강점기 한국에 들어와 다시 발음이 일부 변형된 말이 바로 ‘짱꼴라’이다.”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C%A7%B1%EA%B9%A8>, 검색일: 2020년 12월 9일.

7) “‘되놈’에서 ‘되’라는 말은 본래 두만강 인근의 살던 여진족을 부르는 말이라는 설도 있으나 고려시대 때부터는 중국 한족도 되라고 부른 기록이 있다. 한국어원학회에서는 사람을 뜻하는 ‘돌’과 ‘이’가 결합되어 ‘돌이’라고 하던 것이 도리 → 도이 → 되로 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려시대 때에는 중국 한족의 사신이 잘 씻지 않아서 냄새가 났다고 하며 중국 한족을 되라고 불렀다는 고려사의 기록이 있다.”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B%90%98%EB%86%88>, 검색일: 2020년 12월 9일.

8) 高麗棒子(朝鮮語: 가오리빵즈/고려봉자) 是華人對朝鮮半島的朝鮮民族的貶稱。該詞早在清代就已出現, 但卻是清末民國時期尤其是中國抗日戰爭時期(1931年—1945年)才廣泛使用。由於日本派遣很多朝鮮人到中國為戰爭服務, 使得中國民眾對其恨之入骨, “高麗棒子”這一蔑稱便大範圍流傳開來。

출처: <https://baike.baidu.com/item/%E9%AB%98%E4%B8%BD%E6%A3%92%E5%AD%90/1349048?fr=aladdin>, 검색일: 2020년 12월 9일.

중국인들의 한이 서려 있는 말이며, 그 속에서 한국의 일제강점기 역사와 한국인들의 한 또한 엿볼 수 있는 말이기도 하다. 한국에 대한 중국인의 편견을 반영한 것으로 ‘김치국(泡菜國)’<sup>9)</sup>라는 말도 있다. 물론 그 나라의 대표적 음식과 나라를 연결하여 별칭으로 부르는 것은 크게 문제시되지 않지만, ‘김치국’이라는 단어가 발화될 때의 문맥을 고려해 보면 그 언표행위가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치국 유학기(泡菜國留學記)』<sup>10)</sup>라는 인터넷 소설은 한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그리고 있는데, “이상은 풍부하지만, 현실은 매우 뼈저리다. 내가 맞닥뜨린 유학 생활과 동경은 완전히 반대였다. 여기에는 내가 사랑하는 오빠(歐巴)는 없고 단지 각양각색의 루저(屌絲), 쓰레기 같은 남자(渣男), 악몽만 있다. 여기에는 내가 상상하는 맛있는 요리는 없고, 단지 사람을 구역질나게 하는 ‘부패한 요리(黑暗料理)’만 있다. 그래도 다행히 네가 우정을 찾았으니, 물론 어쩌면 사랑도 있을지 모른다.”<sup>11)</sup>라는 소설의 소개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내용은 한국에 부정적이다. 한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소설의 제목에서 ‘김치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결코 한국을 우호적으로 부르는 명칭은 아닐 것이다.

그동안 한·중 교류, 특히 문화적 교류를 둘러싸고 양국 간에 크고 작은 충돌이 있었고, 그때마다 우리는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골을 확인해 왔다. 그 간극은 시간이 지나도 메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BTS 논란’은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다시 수면 위로 부상시키

9) 일부 중국인이 각 나라의 대표적인 음식을 그 나라와 연결하여 일본을 ‘스시국(壽司國)’, 미국을 ‘햄버거국(漢堡國)’ 등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 ‘김치’이기 때문에 한국을 일컬어 ‘김치국’이라고 부른다.

10) 2014년 7월 12일 ‘소설독해 사이트(小說閱讀網)’에 연재되기 시작한 인터넷 소설로, 작가는 란권권(藍筠君)이다. 이 소설은 2014년 11월 1일 ‘입학(6)’을 끝으로 새로운 내용이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연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11) 理想很豐滿，現實很骨感，我一善水遇到的留學生活與嚮往的全然相反。這裏沒有你愛的歐巴，只有各種各樣的屌絲、渣男和噩夢；這裏沒有你想象中的美味佳餚，只有令人作嘔的“黑暗料理”，但還好，你找到了友情，當然或許也有愛情。출처:

<http://www.ifzzw.com/520060166.shtml>, 검색일: 2020년 12월 9일.

는 계기가 됐다. 본고는 BTS의 수상식 발언과 관련하여 ‘항미원조(抗美援朝)’에 관한 중국 공청단중앙(共靑團中央)의 웨이보(微博) 게시물과 댓글<sup>12)</sup>, BTS 논란과 관련하여 웨이보에서 ‘인기 검색어(熱搜)’에 오른 BTS에게 사과를 촉구하거나 비판하는 게시물들과 댓글<sup>13)</sup>, BTS 논란을 전후하여 발생한 ‘마오 논란’, ‘판다 논란’, ‘한복 논란’, ‘짜오차이 논란’ 등 중국에서의 일련의 논란에 대한 한국의 보도 기사들<sup>14)</sup>과 온라인 댓글<sup>15)</sup>을 중심으로, BTS 논란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과 그 속에 내재된 담론들을 분석하여, 한·중 교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양국의 앞으로의 교류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한다.

## 2. 한·중 사이 편견과 원인

BTS를 둘러싼 논란은 1992년 한·중 양국이 수교를 맺은 이래 약 30여 년

- 12) 출처: <https://m.weibo.cn/3937348351/4558988165000611>, 검색일: 2020년 12월 9일.
- 13) 웨이보에 BTS 논란과 관련한 ‘인기 검색어’ 게시물들은 매우 많은데, 본고에서는 그 중 가장 상단에 노출되는 ‘HOT’ 게시물들을 주로 인용하고 분석하였으며, 대표적 게시물들은 다음과 같다.  
출처: <https://m.weibo.cn/1642591402/4306040990085424>, <https://m.weibo.cn/2950294880/4568670379966724>, 검색일: 2020년 12월 10일.
- 14) 각 논란을 보도하는 대표적 기사들은 다음과 같다. 유성운, 「“마오 어때요” 이효리 한마디에 뿔난 중네티즌 “올 생각 말라”」, 『중앙일보』, 2020년 8월 24일. 김윤구·김효정, 「블랙핑크, 장갑 안 끼고 판다 만졌다가 중국서 논란」, 『연합뉴스』, 2020년 11월 6일. 김재현, 「“한복은 중국 명나라 의상”..중게임회사에 서경덕 교수 화났다」, 『서울신문』, 2020년 11월 26일. 정현용, 「中환구시보 “중국이 김치표준 획득”...알고보니 영터리 보도(종합)」, 『서울신문』, 2020년 11월 29일.
- 15) SNS에 게시물을 업로드 하고 댓글을 다는 네티즌들과 기사에 적극적으로 댓글을 다는 네티즌들의 성별이나 연령층이 게시물이나 기사의 성격에 따라 특정한 ‘쏠림 현상’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댓글들이 한·중 양국 국민 모두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할 수 없으나, 온라인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여론을 주도하는 네티즌들의 사고와 경향을 일정 정도 갈무리 할 수 있기 때문에, 한·중의 문화적 갈등을 둘러싼 담론 분석에 있어 댓글 분석은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동안 쌓여온 문제들이 단적으로 표출된 사건이다.<sup>16)</sup> 한·중 양국 국민은 서로에 대해 비하하는 단어들 존재할 정도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대체 무엇일까? 그 원인은 물론 단순하지 않으며, 정치·경제·역사·문화 전반에 걸쳐 산재해 있다.

첫 번째 원인으로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정치체제는 ‘자유주의’를,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하고 있으며, 냉전 시기 서로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알튀세르는 이데올로기를 “주어진 한 사회 내에서 역사적 존재 및 역할을 부여받은, 표상들(이미지들, 신화들, 이념들 또는 경우에 따라 개념들)의 체계(자기 자신의 논리와 엄밀성을 지닌 체계)”<sup>17)</sup>라고 서술하며, “표상들의 체계로서의 이데올로기 내에서는 실천적-사회적 기능이 이론적 기능(또는 인식의 기능)보다 우세하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기는 과학과 구별된다”<sup>18)</sup>라고 이데올로기와 과학을 구별한 바 있다. 즉, 우리 삶을 표상하는 체계로서 이데올로기는 ‘실천적’이고 ‘사회적’으로 기능하며,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경제, 역사, 문화 등 다른 영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양국 간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차이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문제가 2016년의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이다. 물론 사드 배치는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 한·미, 한·중, 미·중, 북·미, 북·중의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이러한 이해관계가 형

16) 임대근은 한·중 사이의 문화 갈등이 2000년대에 들어와 소위 ‘동북공정’ 이후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 주목하며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우선 1992년 양국의 국교 수립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상호 탐색 단계 혹은 밀월 단계라 할 수 있는 초기 단계를 거친 이후 상호 인식에 대한 제 2단계로서의 오해와 부정의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인터넷과 다양한 뉴미디어들이 상호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행사하는데 일조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임대근, 「한-중 문화갈등의 발생 구조와 대응 방안」,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0권 제3호 (통권 24호), 한중사회과학학회, 2012, 75쪽.

17) Louis Althusser, 서관모 옮김, 『마르크스를 위하여』, 서울: 후마니타스, 2017:2018, 403~404쪽.

18) Louis Althusser, 서관모 옮김, 위의 책, 404쪽.

성된 원인을 근원적으로 따져본다면 결국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상이함에서 야기된 ‘냉전 시기’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중 국민은 이데올로기의 ‘망령’에 계속해서 고통 속에 살고 있고, 이를 타파하기란 쉽지 않으며, 그것을 인식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데올로기는 오랜 시간 동안의 교육과 경험을 통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영향을 주고 있으며, 또한 너무나 자연스럽게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출현하기 때문이다.

저녁들은 한국이 북조선인줄 착각하나보네. 당시 중공군은 우리적국이었고 미국은 헬맹이었는데 지금도 맹방이고. 한국사람 BTS가 저런자리서 저런 멘트하는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게 적절한 멘트날린건데... 저러니 짱께 소리 듣지 (한국시간 2020년 10월 13일 8시)<sup>19)</sup>

- 중국의 BTS 논란을 보도하는 『중앙일보』 기사에 대한 한국 네티즌의 댓글<sup>20)</sup>

선조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중국인도 없었을 것이고, 오늘의 평화로운 삶도 없었을 거야. 뽕즈들에게 아침꾼(緜狗)이 될 때, 이런 선열들을 생각해 (중국시간 2020년 10월 12일 0시 1분)<sup>21)</sup>

- 공청단중앙 웨이보 게시물에 대한 중국 네티즌의 댓글<sup>22)</sup>

위에서 언급한 댓글만 봐도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상이한 양국 국민들의 의식 차이를 잘 알 수 있다. 한국의 댓글을 보면 냉전시기 ‘한국-미국’과 ‘중국-북한’ 사이 이데올로기적 차이에 의한 한·중 양국 진영의 다름을 잘 인식하고 있다. 중국의 댓글을 보면 ‘6·25 전쟁에 희생된 선열을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19) 한국의 댓글을 인용할 때 비속어 사용,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오류가 있더라도 원문 그대로 인용하였다.

20)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892128>, 검색일: 2020년 12월 9일.

21) 중국 웨이보의 게시물과 댓글을 번역할 때 원문의 뉘앙스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비속어, 신조어 등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았다.

22) 沒有先輩們的犧牲，就沒有今天的中國人，沒有今天的和平生活，給棒子們當緜狗的時候，想想這些先烈們， 출처: <https://m.weibo.cn/3937348351/4558988165000611>, 검색일: 2020년 12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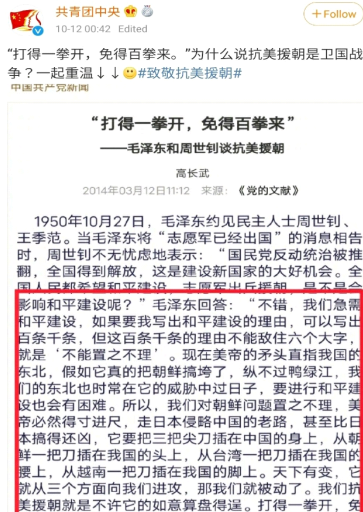
있는데, 이는 6·25 전쟁을 미국에 대항하여 북한을 도운 전쟁, 즉 소위 ‘항미 원조’라고 규정하는 중국 관방 이데올로기에 따른 교육을 충실히 받은 중국인들의 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 특히, 한국인들은 중국의 정치체제와 이데올로기가 상당히 독단적이며 ‘사상 검열 또한 빈번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BTS 논란이 터지고 약 한 달 후에 보도된 ‘한국인 교수의 BTS 강의에 대한 중국 대학 측의 검열’ 기사<sup>23)</sup>는 이러한 인식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이처럼 한·중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오해와 편견, 그리고 문화 갈등을 둘러싼 담론들의 근원을 탐색하다 보면 양국의 정치적 이데올로기 차이에 의한 대립과 단절의 역사, 정부 주도의 이데올로기 교육, 이로 인해 양국 국민들의 삶과 사상에 내면화 된 이데올로기의 무의식적인 발현과 마주할 수 있다.

둘째는 역사 문제를 둘러싼 서로의 갈등을 들 수 있다. ‘동북공정(東北工程)’에서부터 최근 BTS 논란으로 드러난 ‘6·25 전쟁’을 둘러싼 갈등까지 양국 간에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문제는 상당하다. 특히 ‘6·25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는 양국의 관점은 냉전 시기부터 이어진 정치적 이데올로기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어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2020년 10월 7일 BTS의 밴 플리트 상 시상식 발언 후, 2020년 10월 12일 『환구시보』에서 수상 소감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비난을 보도하기 전, 공청단(共靑團)<sup>24)</sup>중앙 웨이보 공식계정은 중국시간 2020년 10월 11일 밤 11시 42분 “주먹 한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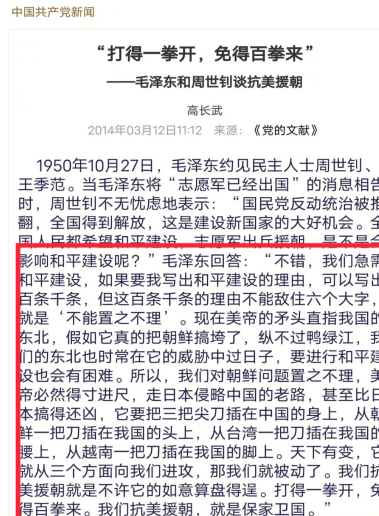
23) “지난달 방탄소년단(BTS)의 한국전쟁 관련 발언이 중국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후 현지 대학에서 BTS 관련 강의를 사전에 검열·차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쓰촨대·피츠버그학원(SCUPI)에 근무하는 한국 국적 조교수인 정아름씨는 최근 경영대에서 K팝의 소프트파워를 주제로 강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학교로부터 BTS와 관련한 부분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정 교수는 학교 측의 지시를 거부하고 강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SCMP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학술기관이 강의 내용을, 그것도 국수주의자들이 제기하는 터무니없는 말을 근거로 강의 내용을 검열하려는 것에 대해 기분이 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자기검열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다혜, 「“강의때 BTS 언급하지 마”..中, 교육계로 이어진 ‘트집’」, 『NEWS1』, 2020년 11월 16일.

24) 중국공산주의청년단(中國共產主義青年團)의 약칭으로 중국공산당이 운영하는 청년 조직이다.

처서 주먹 백 대를 모면하다.’ 왜 항미원조를 위국 전쟁이라고 하는가? 다 같이 되새기자(“打得一拳開，免得百拳來。”爲什麼說抗美援朝是衛國戰爭？一起重溫)라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포스팅하였다.(아래 <그림1> 참고) 이 게시물은 ‘6·25 전쟁’ 당시 인민해방군의 참전과 관련한 ‘저우스자오(周世釗)’와 ‘마오쩌둥(毛澤東)’의 대화를 인용했는데, 특히 마오쩌둥의 대답을 빨간색 박스로 강조하며 ‘항미원조’를 강조하고 있다.(아래 <그림2> 참고)



<그림1> 공청단중앙 웨이보 게시물125)



<그림2> 공청단중앙 웨이보 게시물226)

마오쩌둥의 대답은 ‘6·25 전쟁’을 ‘항미원조’로 바라보는 중국의 입장과 소련 스탈린과 중국 마오쩌둥의 도움을 받은 ‘북한의 남침 전쟁’이라 간주하는 한국의 입장 차를 명확히 보여준다.

25) 출처: <https://m.weibo.cn/3937348351/4558988165000611>, 검색일: 2020년 10월 17일, 12월 6일, 12월 9일. 이 게시물은 게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10월 17일 리포스트 1.3만 회, 댓글 5999개, 좋아요 14.3만 개가 달렸고, 약 두 달 후인 2020년 12월 6일 리포스트 1.3만회, 댓글 6213개, 좋아요 14.8만 개가 달렸다.

26) 이 웨이보 게시물이 인용한 것은 『중국공산당 신문(中國共產黨新聞)』의 자료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평화 건설이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평화 건설의 이유를 써야 한다면, 백 줄 천 줄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백 줄 천 줄의 이유도 여섯 개의 글자에 대적하지 못합니다. 바로 ‘내버려 두고 거들떠보지 않을 수 없다’입니다. 현재 미 제국주의의 창끝은 우리나라의 등배이를 겨누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 조선을 무너뜨린다면, 압록강을 가로질러 우리의 등배이 또한 늘 그 위협 속에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평화 건설을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의 문제를 내버려 두고 거들떠보지 않는다면, 미 제국주의는 반드시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전례를 따를 것이며, 심지어 일본보다 더 흉악할 것입니다. 미 제국주의는 세 개의 날카로운 칼을 중국의 몸에 꽂아 넣을 것입니다. 조선에서 우리나라의 머리에 칼 하나를 꽂을 것이고, 대만에서 칼 하나를 우리의 허리에 꽂을 것이며, 베트남에서 칼 하나를 우리의 다리에 꽂을 것입니다. 천하는 변하고 미 제국주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를 향해 진격할 것이며, 그러면 우리들은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의 항미원조는 바로 뜻대로 되기 바라는 미 제국주의의 목적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먹 한 대 쳐서 주먹 백 대를 모면하다. 우리의 항미원조는 바로 집과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sup>27)</sup>

‘6·25 전쟁’에 대한 양국의 입장은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개입되어 그 이견을 좁힌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는 국가의 근원과도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인해전술’을 앞세운 중국 인민군의 참전으로 남북의 분단 상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이 때문에 한국의 발전이 일정 정도 제약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 주요 원인 제공자라 생각하는 중국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세 번째 원인은 경제적 측면에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중 양국은 서로에 대한 무역 의존도와는 별개로 서로 첨예한 기술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업, 반도체 산업, 스마트폰 제조업 등에서 한국과 중국은 세계 1, 2위를 다투며 었치락뒤치락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을 둘러싸

27) 원문 출처: <http://dangshi.people.com.cn/n/2014/0312/c85037-24613810.html>, 검색일: 2020년 12월 9일.

고 한국인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중 수교 직후 한국은 중국에 적극적으로 기술 이전을 해주고 중국에서 값싼 노동력을 제공받았다.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단시간 내에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양국의 경제적 지위는 역전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급성장이 공정하고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기술 유출’과 같은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하며 한국인들 또한 이런 인식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용이 증가된 화상 회의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줌(Zoom)’은 중국계 미국인이 창업자이며 데이터 일부가 중국에 있는 서버를 거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안 문제가 대두되었고, 미국과 유럽의 주요국 정부와 기업에서 사용이 금지되기도 하였다. 한국에서도 ‘줌’의 보안 문제가 대두<sup>28)</sup>되어 일부 기업과 교육기관에서는 ‘줌’ 대신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차이나 리스크(China Risk)’라고도 불리는 ‘줌’의 문제는 중국에 대한 다른 나라와 한국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특히 한국은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에 있어 직접적인 피해 사례가 여러 번 보도된 적<sup>29)</sup>이 있고, 최근에는 중국의 첨단기술 인재 빼가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사설<sup>30)</sup>이 등장하기도 하는 등 이 문제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인식에는 경제적으로 중국에 추월당하고 쫓기고 있는 한국인들의 불안 심리 또한 작동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난 중국의 일부 ‘치팅(cheating)’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반대로 경제적 문제를 둘러싸고 형성된 한국에 대한 중국인의 반감 또한

28) 지윤성, 「‘줌(Zoom)’ 화상회의, 보안상 안전하지 않다」, 『NEWSTOF』, 2020년 4월 20일.

29) 최근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속 교수가 중국에서 수억 원을 지원받아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일어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 또한 발생했다. 배성수, 「중국에 ‘자율주행 기술’ 유출 의혹 KAIST 교수…검찰 수사」, 『한국경제』, 2020년 9월 10일.

30) 「中의 첨단기술 인재 빼가기…美·日 수준 대응책 세워야」, 『한국경제』, 2020년 12월 7일.

존재한다. 한·중 수교 직후 ‘한국-중국’ 간에 존재했던 경제적 격차가 이미 역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중 일부는 이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설사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차이나 머니(China Money)’라 비하하고 조롱한다. 하지만 정작 이 ‘차이나 머니’를 필요로 하고 의존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다. 이를 중국인들이 모를 리 없으며 한국인들의 이러한 모순적인 태도는 중국인의 입장에서 불만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양국의 경제적 갈등은 양국의 문화산업과 연계되어 문화적 갈등으로 극대화되어 표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상당한 골칫거리이다.

### 3. 한·중 문화 갈등과 담론

1400년전 고구려 백제를 망하게 한 나라..

70년전 이 나라 통일을 막은 나라..

지금 우리 문화의 힘을 꺾으려 하는 나라.. (한국시간 2020년 11월 16일 오후 2시 40분, 좋아요 509개)

- 중국의 BTS 관련 강의 검열을 보도하는 『NEWS1』 기사에 대한 한국 네티즌의 댓글<sup>31)</sup>

네 아이들은 28살에도 여전히 중국 팬들의 돈을 벌고 있지만, 마오안잉(毛岸英)은 28살에 이미 타국에서 영면했어. (중국시간 2020년 10월 11일 밤 11시 49분, 대댓글 169개, 좋아요 6115개)

- 공청단증양 웨이보 게시물에 대한 중국 네티즌의 댓글<sup>32)</sup>

위의 두 댓글은 ‘중국 대학의 한국인 교수 BTS 강의 검열’에 대한 한국 『NEWS1』 보도와 공청단증양의 ‘항미원조 웨이보 게시물’에 달린 댓글 중

31) 출처: [https://news.v.daum.net/v/20201116143531540?x\\_trkm=t](https://news.v.daum.net/v/20201116143531540?x_trkm=t), 검색일: 2020년 12월 9일.

32) 你愛豆28歲還在賺中國粉絲的錢, 毛岸英28歲已經長眠於異國他鄉 출처: <https://m.weibo.cn/3937348351/4558988165000611>, 검색일: 2020년 12월 6일.

각각 첫 번째와 세 번째로 ‘좋아요’를 많이 획득한 댓글이다. 이 두 댓글은 한·중 문화교류에 있어 한·중 양국의 네티즌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양국의 문화적 갈등<sup>33)</sup>에 내재된 담론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문화 자본주의의 역학이 내재되어 있다. 한·중 수교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양국의 문화교류는 대중문화 교류가 주를 이루며 이는 문화산업의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교류가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의 대중문화 교류에서, 특히 문화의 전파 측면에서 한국이 우위를 차지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즉 한국 대중문화가 중국에 소개되고 전파되는 것이 중국의 대중문화가 한국에 소개되고 전파되는 것을 압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는 문화 자본의 논리 또한 작동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 내수 시장의 한계를 타파하기 위해 중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면서 산업적 이익을 획득하고자 도모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 시장을 향한 적극적 진출은 한류스타에 대한 일부 중국인의 부정적 인식을 야기하기도 했다. 그들은 한류스타들이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중국에 진출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인식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대표적 사건이 ‘장나라 강심장 발언 논란’이다. 2009년 SBS의 예능 프로그램 <강심장>에서 ‘장나라’는 부친이 제작한 영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개런티가 안 들어왔어요, 스탭 분이 그러면 또 중국에 가고, 어디서 뭐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중국에 가고…”라는 말을 했다. 그런데 이 화면에 “돈 없으면 자주 중국을 찾는다”라는 자막이 함께 나오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 프로그램이 방송된 며칠 뒤 중국에서 장나라가 돈이 없으면 중

33) 임대근은 사회학에서의 문화 갈등 이론과 성과를 검토하면서 한·중 양국 사이의 문화 갈등 현상의 층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빈발하고 있는 문화 갈등은 같은 사회 내부의 갈등으로 간주할 수는 없고 서로 다른 국가 혹은 그 국가들 내부의 특정한 집단(세대, 계층 등으로 구분된)들 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유사한 개념으로 문화 충돌, 문화 충격, 문화 마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임대근, 위의 글, 73쪽.

국에 와서 ‘돈을 뜯어간다(圈錢)’라는 기사가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다.<sup>34)</sup> 논란이 커지자 결국 장나라와 그의 부친이 직접 사과하기까지 했지만, 그동안 중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장나라의 입지는 단숨에 흔들리게 되었다. 이후 한류 스타나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 관련 발언이 중국에서 논란이 되면 ‘중국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댓글이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

이번 BTS 논란에서도 이 같은 취지의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앞서 3절의 서두에서 언급한 댓글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일부 중국 네티즌은 ‘6·25 전쟁’에 관한 BTS의 역사적 관점뿐만 아니라 이 논란에 대한 BTS의 태도와 반응이 중국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웨이보에서 ‘방탄소년단 사과(防彈少年團道歉)’와 ‘방탄소년단 고발비평팀(防彈少年團控評組)’, ‘방탄소년단 중국 모욕(防彈少年團辱華)’이라는 단어를 각각 해시태그로 달아서 BTS를 비판하였는데, 이 중 ‘방탄소년단 사과’와 ‘방탄소년단 고발비평팀’이라는 해시태그는 ‘인기 검색어’에 오르기도 하였으며 토픽(topic, 話題, 화티)<sup>35)</sup> 게시판<sup>36)</sup>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이 게시판의 게시물들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는 2018년 한·일 양국에서 논란이 된 BTS의 멤버인 ‘지민(JIMIN, 본명: 박지민)’의 ‘원폭 티셔츠 논란’<sup>37)</sup>을 언급하면서, ‘BTS가

34) 대표적인 중국 언론 보도 기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張娜拉事件”，該由誰道歉?」, 『中網資訊』, 출처: [http://say.cqnews.net/wy/200911/t20091114\\_3779478.htm](http://say.cqnews.net/wy/200911/t20091114_3779478.htm), 검색일: 2009년 11월 14일. 「張娜拉懇談會解釋“圈錢說”一身黑衣全程低頭」, 『華龍網』, 출처: <http://www.chinanews.com.cn/y1/y1-mxzz/news/2009/11-25/1982585.shtml>, 검색일: 2009년 11월 25일. 「張娜拉“圈錢說”多數網友覺得被傷害感情」, 『國際在線』, 출처: <http://gb.cri.cn/27564/2009/12/03/1326s2694387.htm>, 검색일: 2009년 12월 3일.

35) “화티”를 통해 웨이보에 게시물을 포스팅 할 경우, 본인이 지정한 단어에 해당되는 ‘화티’로 게시물이 갈무리된다. 이 ‘화티’는 한국의 SNS에서 ‘해시태그’를 사용해 단어를 입력하여 게시물을 포스팅 하면, 나중에 ‘해시태그’로 관련 단어를 검색할 때 해당 게시물들이 검색되어 나오는 방식과 유사하다.” 김정은, 「중국 시피편(CP粉)의 한류 팬덤 문화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25쪽.

36) 해시태그가 많은 ‘토픽(화티)’은 따로 게시판을 형성하기도 하여, 관련 게시물들을 갈무리해서 볼 수 있다.

일본에는 사과했지만 중국에는 사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한다.<sup>38)</sup> 둘째는 BTS가 이전에 한 인터뷰에서 '대만을 한 국가로 인정<sup>39)</sup>하면서 중국을 모욕하였다'는 것을 강조한다.<sup>40)</sup> 이러한 게시물들은 물론 양국의 정치·역사적인 입장 차가 반영된 것이지만, 한편으로 문화 자본의 논리 또한 내재되어 있다. BTS는 중국 시장을 겨냥하여 활동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상당한 팬덤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수상 소감 논란이 발생하기 전 BTS는 새 앨범 발매를 목전에 두고 있었고, 중국의 BTS 팬덤에서는 공개적으로 앨범 대리 구매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BTS의 수상 소감 사건이 터진 후 중국의 일부 네티즌은 BTS의 팬과 팬덤을 향해 '항미윈조'라는 역사 인식 문제와 더불어, 3절 서두의 댓글처럼 '중국 팬의 돈을 번다(賺中國粉絲的錢)'라고 맹렬하게 공격했던 것이다. 결국 논란과 비난이 불거지자 팬덤의 공개적인 새 앨범 단체 대리구매는 모두 취소되었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한국 아이돌 그룹에 속한 중국인 멤버들을 문화 자본의 측면과 관련하여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장나라 사건'이 터졌던 2009년 당시 한국을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 중 하나였던 '슈퍼 주니어(SUPER JUNIOR)'의 중국인 멤버 '한경(韓庚)'이 소속사와의 분쟁으로 그룹을 탈퇴했다. '한경'은 중국으로 돌아가서 연예 활동을 이어가며 한국을 비판하는 발언<sup>41)</sup>을 하거나 혐한(嫌韓) 광고<sup>42)</sup>를 촬영하여 한국에서 논란이 되었다. 그 후

37) 김진우·이유진, 「혐한·극일 민낯 들춰낸 'BTS' 티셔츠」, 『경향신문』, 2018년 11월 11일.

38) '방탄소년단 사과'라는 해시태그의 토픽 게시판의 'HOT' 게시물에는 '시나 오락(新浪娛樂)' 웨이보 공식계정에서 올린 일본에 대한 BTS의 사과 게시물이 제일 위에 올라와 있고, 그 게시물은 리포스트 605회, 댓글 6,823개와 좋아요 4,525개가 달렸다. 출처: <https://m.weibo.cn/1642591402/4306040990085424>, 검색일: 2020년 12월 10일.

39) BTS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여행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는 질문을 받고 대만이라고 대답하였는데, 이것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기조와 그러한 교육을 받아온 중국인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40) 대표적인 게시물은 다음과 같다.

출처: <https://m.weibo.cn/2950294880/4568670379966724>, 검색일: 2021년 2월 15일. 이 게시물은 리포스트 1849회, 댓글 1,165개와 좋아요 1.7만개가 달렸다.

또 다른 한국의 대표적 아이돌 그룹 ‘엑소(EXO)’의 중국인 멤버 ‘크리스(KRIS)’, ‘타오(TAO)’, ‘루한(LUHAN)’이 차례로 그룹을 탈퇴하는 과정에서 팬덤에서 ‘뺨스런’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며, 한국에서 중국인 멤버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인식이 생겨났다.<sup>43)</sup> 대표적인 K-POP 그룹의 멤버로 데뷔하여 인기를 얻고 인지도가 급상승한 후 그룹을 탈퇴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본국인 중국으로 가서 ‘한류 스타’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돈을 번다는 것이다. 이처럼 문화 자본을 둘러싼 갈등은 팬덤 내에서조차 서로 간의 불신이 만연할 정도로 양국의 문화교류에서 좀처럼 해소되기 힘든 문제가 되었다.

둘째, 문화 패권주의/제국주의의 논리가 내재되어 있다. 덩샤오핑(鄧小平) 집권 시기 경제 발전을 위해서 몸을 낮춰왔던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시기 중국 주도의 경제 벨트인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세계의 중심 역할을 했던 중국의 영광을 21세기에 다시 재현하겠다는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천명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위대한 중국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의미한다. 이 ‘일대일로’와 ‘중국몽’ 실현에 대한 중국과 중국인의 열망이 강해질수록 이와는 반대로 주변 국가들의 경계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특히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양국 간의 문화적 주도권 쟁탈 또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중국이 원하는 세계의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적 중심 역할뿐만 아니라 문화적 중심 역할 또한 차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아시아와 아시아에서 먼저 문화적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데, 중국이 과거 전통문화에서 중심적 역할을 확고히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현재 대중문

41) 한경은 대만의 한 TV 토크쇼에서 한국에서의 활동을 비판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 내용이 한국에서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관련 보도로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뉴스팀, 「한경 “SM에 소송, 스트레스로 자살 충동 느꼈기 때문”」, 『세계일보』, 2010년 8월 18일.

42) 이 광고에 관한 논란을 보도한 대표적 기사는 다음과 같다. 김종효, 「슈주 한경, 험한 CF출연에 네티즌 비난 “배신감 느껴”」, 『뉴스엔』, 2010년 11월 17일.

43) 이러한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시물은 다음과 같다.

출처: <https://blog.naver.com/nahndii/222083048625>, 검색일: 2020년 12월 10일.

화에 있어서 이렇다 할 중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중국은 아시아에서 문화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당면 과제 중 하나인데, 이를 위해서는 필히 ‘한류’에 대해 경계를 해야 하며, ‘한류’를 넘어서야 한다. 중국이 원하는 아시아 대중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현재 ‘한류’를 앞세운 한국이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획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중국은 ‘한류’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중국의 한류에 대한 경계와 초월에 대한 욕망은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논란으로까지 비화되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리랑’을 둘러싼 논란과 최근 ‘한복’과 ‘김치’를 둘러싼 논란이다. ‘아리랑’, ‘한복’, ‘김치’는 한국인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이며 한국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아리랑’을 중국의 소수민족 문화로서 ‘중국 국가 무형문화재’에 등록하고, ‘한복’이 명나라의 의상이라는 일부 중국 네티즌의 주장과 ‘김치’를 삼국시대 중국에서 전래된 음식이라고 하는 바이두 백과사전의 서술<sup>44)</sup>은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의 뿌리는 중국이며, 결국 한국은 제대로 된 고유의 전통문화가 없는 나라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는 양국의 문화적 주도권을 중국이 가지고 있음을, 중국이 명실상부한 전통적 문화 패권국이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으로, 이는 또한 중화사상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셋째, 애국주의와 문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내재되어 있다. 한·중 수교 이후 중국에서 한류가 중국 대중문화를 선도하고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중국의 문화적 박탈감은 상대적으로 심화되어 왔다. 특히 자문화에 대한 민족적 자부심을 바탕으로 주변 국가와 민족을 ‘오랑캐’로 천시하고 배척하는 중화사상을 가지고 있던 중국인들에게 ‘동쪽의 오랑캐(東夷)’ 중 하나인 한국의 대중문화에 주도권을 빼앗긴 것은 쉽사리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다. 한류에

44) 이용성, 「“김치는 삼국시대 때 중국에서 전래”...논란 다시 불지핀 중국」, 『조선비즈』, 2020년 12월 9일.

열광하는 중국 젊은이들을 지칭하는 ‘하한쭈(哈韓族)’라는 용어에 대한 바이두 백과의 설명은 당시 중국의 이러한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자는 대만에서 흔히 쓰는 말로, 예를 들어 ‘我很哈你。’라고 하면 당신을 숭배한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약간 다른 사람에게 ‘머리’를 숙인다는 뜻이다. ‘발바리(哈巴狗)’의 ‘하’자와 같은 의미이다. ‘발바리(삽살개)’라는 이름은 바로 개의 습성 때문에 생긴 이름이기 때문이다. 발바리는 사람들에게 귀여움을 잘 받는다. 주인을 쫓아 달린다. 얼마 전에 중국 ‘하한쭈’가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 아이돌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돌의 사인을 기다리는 모습에서 바로 이것이 확인됐다.”<sup>45)</sup>

한류 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담긴 ‘하한쭈’는 한류 스타에게 무릎을 꿇고 사인을 기다리는 ‘발바리’와 같은 중국 젊은이들의 굴욕적인 모습을 묘사하면서 생겨났는데, 이는 당시 한류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한류에 대한 경계는 중국 문화에 대한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로 연결되기 쉽다. 아래의 댓글은 BTS로부터 ‘탈덕’하지 않으면 중국 국적을 버리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4,227명의 중국 네티즌으로부터 ‘좋아요’를 받았다.

방탄 팬들은 좀 와서 봐라. 이 오랜 세월 동안 개에게 책을 읽어 줬네. 탈덕하지 않을 거면 국적을 버리라고 건의할게. (중국시간 2020년 10월 11일 밤 11시 43분, 대댓글 47개, 좋아요 4,227개)  
- 공청단중앙 웨이보 게시물에 대한 중국 네티즌의 댓글<sup>46)</sup>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를 드러내고 있는 위의 댓글이 공청단중앙 웨이보 공식계정의 ‘항미원조’ 게시물에 대한 댓글 중 여섯 번째로 많은 공감을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 강화된 중국의 애국주의 이데올로기 교육을 받은 세대가 온라인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이 세대는 중국의

45) 김정은, 위의 글, 7쪽 각주 18번.

46) 麻煩防彈的粉絲來看看 這麼多年的書都給狗讀去了[太開心]建議不脫粉就退出國籍, 출처: <https://m.weibo.cn/3937348351/4558988165000611>, 검색일: 12월 6일.

경제, 정치, 문화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수주의적 면모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또한 인터넷 상에서 중국에 대한 ‘근거 없는 우월감’<sup>47)</sup>을 가지고 중국인의 민족성을 언급하면서 중국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 다음의 기사 보도들에 달린 댓글은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이러한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중국이 위생지적하니깐 개 웃기네ㅋㅋㅋㅋㅋㅋㅋㅋ (한국시간  
2020년 11월 7일 저녁 7시 56분, 좋아요 46개)  
- 중국의 블랙핑크 ‘판다 논란’에 대한 한국 『TV조선』 보도 댓글<sup>48)</sup>

세계 4대문명시기부터 이어진 나라면 뭐하나, 문화의식은 200년 역사 미국보다 뒤떨어지는데 ㅋㅋㅋㅋ (한국시간 2020년 11월 29일 저녁 6시 19분, 좋아요 268개)  
- 중국 『환구시보』 ‘파오차이 논란’에 대한 한국 『서울신문』 보도 댓글<sup>49)</sup>

이러한 근거 없는 우월감은 또한 오랫동안 아시아 대중문화를 주도하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한류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기도 하다.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이 같은 우월적 인식은 중국의 문화 애국주의와 민족주의 강화에 대한 반감과 맞물리면서, 아래 <그림3>의 댓글처럼 “중국이 한국의 문화를 빼앗아 가려고 한다”라는 일부 네티즌의 주장이 제기될 정도로,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강한 불만과 반감 형성에 일조하고 있다.

47) “근현대 우리의 중국관은 전통 중국에 대한 관습적 존중과 근현대 중국에 대한 근거 없는 우월감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특히 후자의 인식은 홍콩·타이완의 대중문화에 대한 편견과 매카시즘에 근거한 것으로, 우리에게는 그것을 극복할 과제가 있다.” 홍석준·임춘성, 『동아시아의 문화와 문화적 정체성』,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08, 154쪽.

48) 출처: <http://naver.me/F9nKbKqN>, 검색일: 2020년 11월 7일.

49) 출처: <http://naver.me/GAnU4Ux0>, 검색일: 2020년 12월 9일.

deul\*\*\*\* >

2020.11.07. 21:00

부러우면 부럽다고 인정한 후 니네들꼴 발굴해라.BTS,블랙핑크,김치,한복등등 너네한테 없다고,못 키웠다고해서 배 아프다고 니네꺼라고 우기거나 괜히 엄한 트집잡지말고 니네 나라꺼를 더 열심히 발굴하라고..우리가 하는말이 있다. 부러우면 지는거라고.우리의 그말은 부럽다고 뺏으란 이야기가 아니다!!!

답글 작성

👍 2 🗨 0

<그림3> 중국의 블랙핑크 ‘판다 논란’에 대한 한국 『머니투데이』 보도 댓글<sup>50)</sup>

이처럼 한·중 양국 간에는 오랜 시간에 걸친 상당한 오해와 편견이 형성되어 있고, 그 안에는 정치, 경제, 역사 등 다방면에 걸친 복잡한 문제들과 문화 자본주의, 문화 패권주의/제국주의, 애국주의/민족주의 담론들이 내재되어 있어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 4. 맺음말: ‘사상누각’

한·중 수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양국 사이의 현대 역사와 문화에 대한 몰이해, 역사적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문화적 차이 등은 의도적으로 무시되었다. 이 때문에 양국의 교류에 있어 크고 작은 마찰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양국의 서로에 대한 편견이 적나라하게 표출되고 있으며, 이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화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한·중 양국 사이의 오해와 편견의 형성에 미디어가 자극적 이슈를 쫓아 논란을 확대하고 재생산하면서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양

50) 이 기사는 현재 사라져 댓글들을 볼 수 없고 본 연구자가 당시 댓글을 캡처한 이미지만 있다. 검색일: 2020년 11월 7일.

국 사이의 논란을 미디어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보다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대중들 또한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쉽게 현혹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의도적으로 대중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기사를 보도하는 것은 단순히 특정 인물이나 사건뿐만이 아니라 상대 국가에 대한 혐오 감정까지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가 논란을 보도함에 있어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중 양국에 형성되어 있는 서로에 대한 여러 오해와 편견은 해결되지 못한 채 양국의 문화교류에서 ‘혐중(嫌中)’과 ‘혐한’ 정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서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된 정치, 역사, 경제 등의 원인에 대한 간극을 메우지 못하고 문화적 교류를 둘러싼 갈등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 자본주의, 문화 패권주의/제국주의, 문화 애국주의와 민족주의 담론을 완화시키지 못한다면 양국의 문화교류가 ‘사상누각’이 되어 허물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교류에 대한 긍정적 전망, 장밋빛 미래에 대한 희망은 ‘시뮬라시옹(Simulation)’<sup>51)</sup>, 즉 현실에서 그 비슷한 것조차 가질 수 없는 ‘하이퍼리얼리티(hyperreality)’<sup>52)</sup>이다.

51) “시뮬라시옹은 더 이상 영토 그리고 이미지나 기호가 지시하는 대상 또는 어떤 실체의 시뮬라시옹이 아니다. 오늘날의 시뮬라시옹은 원본도 사실성도 없는 실재, 즉 파생실재를 모델들을 가지고 산출하는 작업이다.” Jean Baudrillard, 하태환 옮김, 『시뮬라시옹』, 서울: 민음사, 2001:2020, 12쪽.

52)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의 시뮬레이션에서는 현실이 여전히 존재하며, 현실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에 따라 시뮬레이션의 성공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의 시뮬레이션과 관련하여, 보드리야르는 이 모델이 이제는 그가 “하이퍼리얼리티”라고 부른, 실제 원본이 없는 세계를 창출한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따라서 세 번째 단계의 시뮬레이션에서 우리는 더 이상 현실 비슷한 것조차 가질 수 없다. 결론적으로 보드리야르는 하이퍼리얼리티가 세계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지배적 방식이 되리라고 예상한다. Richard J. Lane, 광상순 옮김, 『장 보드리야르 소비하기』, 서울: 엘피, 2008, 158쪽.

## 參考文獻

- 홍석준·임춘성, 『동아시아의 문화와 문화적 정체성』,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08.
- Jean Baudrillard, 하태환 옮김, 『시뮬라시옹』, 서울: 민음사, 2001:2020.
- Louis Althusser, 서관모 옮김, 『마르크스를 위하여』, 서울: 후마니타스, 2017:2018.
- Richard J. Lane, 광상순 옮김, 『장 보드리야르 소비하기』, 서울: 엘피, 2008.
- 김정은, 「중국 시피펀(CP粉)의 한류 팬덤 문화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 임대근, 「한-중 문화갈등의 발생 구조와 대응 방안」, 『한중사회과학연구』 제 10권 제3호 (통권 24호), 한중사회과학학회, 2012.
- 김윤구·김효정, 「블랙핑크, 장갑 안 끼고 판다 만졌다가 중국서 논란」, 『연합뉴스』, 2020년 11월 6일.
- 김재현, 「“한복은 중국 명나라 의상”..중게임회사에 서경덕 교수 화났다」, 『서울신문』, 2020년 11월 26일.
- 김종효, 「슈주 한경, 혐한 CF출연에 네티즌 비난 “배신감 느껴”」, 『뉴스엔』, 2010년 11월 17일.
- 김진우·이유진, 「혐한·극일 민낯 들춰낸 ‘BTS’ 티셔츠」, 『경향신문』, 2018년 11월 11일.
- 뉴스팀, 「한경 “SM에 소송, 스트레스로 자살 충동 느꼈기 때문”」, 『세계일보』, 2010년 8월 18일.
- 배성수, 「중국에 ‘자율주행 기술’ 유출 의혹 KAIST 교수…검찰 수사」, 『한국경제』, 2020년 9월 10일.
- 백희연, 「BTS ‘6·25 발언’에 발끈한 중네티즌 “우릴 무시, 아미 탈퇴”」, 『중앙일보』, 2020년 10월 12일.
- 유성운, 「“마오 어때요” 이효리 한마디에 빨난 중네티즌 “올 생각 말라”」, 『중앙일보』, 2020년 8월 24일.

윤다혜, 「“강의때 BTS 언급하지 마”..中, 교육계로 이어진 ‘트집’」, 『NEWS1』, 2020년 11월 16일.

이용성, 「“김치는 삼국시대 때 中서 전래”...논란 다시 불지핀 중국」, 『조선비즈』, 2020년 12월 9일.

정현용, 「中환구시보 “중국이 김치표준 획득”...알고보니 엉터리 보도(종합)」, 『서울신문』, 2020년 11월 29일.

지윤성, 「‘줌(Zoom)’ 화상회의, 보안상 안전하지 않다」, 『NEWSTOF』, 2020년 4월 20일.

차준철, 「“100년 함께 산 우릴 외국인이라뇨” 인천 선린동 차이나타운」, 『경향신문』, 1999년 6월 5일.

「中의 첨단기술 인재 빼가기...美·日 수준 대응책 세워야」, 『한국경제』, 2020년 12월 7일.

<https://blog.naver.com/nahndii/222083048625>

<https://ko.wikipedia.org/wiki/%EB%90%98%EB%86%88>

<https://ko.wikipedia.org/wiki/%EC%A7%B1%EA%B9%A8>

<http://naver.me/F9nKbKqN>

<http://naver.me/GAnU4Ux0>

<https://news.joins.com/article/23892128>

[https://news.v.daum.net/v/20201116143531540?x\\_trkm=t](https://news.v.daum.net/v/20201116143531540?x_trkm=t)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8554&cid=43667>

<https://baike.baidu.com/item/%E9%AB%98%E4%B8%BD%E6%A3%92%E5%AD%90/1349048?fr=aladdin>

<http://www.chinanews.com.cn/yl/yl-mxzz/news/2009/11-25/1982585.shtml>

<http://dangshi.people.com.cn/n/2014/0312/c85037-24613810.html>

<http://gb.cri.cn/27564/2009/12/03/1326s2694387.htm>

<http://www.ifzzw.com/520060166.shtml>

[http://say.cqnews.net/wy/200911/t20091114\\_3779478.htm](http://say.cqnews.net/wy/200911/t20091114_3779478.htm)

<https://m.weibo.cn/1642591402/4306040990085424>

<https://m.weibo.cn/2950294880/4568670379966724>

<https://m.weibo.cn/3937348351/4558988165000611>

## Abstract

### The Gap between ‘Jjangkae’\* and ‘Bangzi’\*\*

: ‘A house of cards’ of Korean-Chinese Cultural Exchange through the ‘BTS Controversy’

Kim, Jung Eun

The controversy surrounding BTS is a case in which several problems that have accumulated over the past 30 years since Korea and China signed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have been plainly expressed.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regarding the BTS controversy and the discourses underlying the matter, focusing on posts and comments on Weibo of China and articles and online comments of Korean, diagnoses the current status of cultural exchange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predicts exchanges in coming days.

Both Korea and China have misunderstanding and prejudice to the extent that there are words that they despise each other, and the causes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hree. Firstly, there is a difference in political ideology. Secondly, there is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over the historical issues. Thirdly, in terms of economics, the interests of the two countries are sharply opposed.

The discourse underlying the cultural conflict between Korea and China can be summarized in three ways. First, the dynamics of cultural capitalism is inherent. Second, the logic of cultural hegemony/imperialism is latent. Third, the ideology of patriotism and cultural nationalism is immanent.

If the two countries cannot reduce the gap in the causes that have formed negative perceptions against each other in politics, history, economy, etc., and alleviate the discourses inherent in the conflict over cultural exchange,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be literally ‘a house of cards.’ It i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the collapse.

**Key words** : Korean–Chinese cultural exchange, BTS controversy, Jjangkae, Bangzi, prejudice between Korea and China, cultural conflict between Korea and

China, a house of cards

- \* Jjangkae : Derogatory word by Korean against Chinese
- \*\* Bangzi : Derogatory word by Chinese against Korean

투 고 일 : 2021. 1. 10. / 심 사 일 : 2021. 1. 15. ~ 2021. 2. 15. / 게재확정일 : 2021. 2. 20.
---